

레드위너스 7회 6점 ... 홈런군단 에슬레틱스 꺾고 4강

광주일보 무등기 사회인 야구

페가수스·새한기업 4강 합류

무등리그 준결승에서 맞붙을 4팀이 모두 결정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주차 경기가 지난 4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치러졌다. 무등리그 8강전 두 경기와 광원리그 8강전 한 경기에서 페가수스, 새한기업재규어스, 레드위너스가 승리팀이 됐다. 이번 경기로 무등리그 준결승팀이 모두 가려졌다. 앞선 경기를 통해 4강 진출을 확정지은 허버베이스볼과 베프스와 함께 페가수스, 새한기업재규어스가 결승을 향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레드위너스는 가장 먼저 광원리그 4강 고지를 밟았다. 페가수스는 F9수완O-lens와의 경기에서

서 김영학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4-4로 맞선 7회 페가수스의 선두타자 오광석이 볼넷에 이어 도루로 2루를 밟는데 성공했다. 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3루, 3번 타자 김영학이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면서 팀의 4강행을 확정지었다. 끝내기의 주인공 김영학은 승리까지 행하며 준결승행의 주역이 됐다. 새한기업재규어스는 상대팀의 지각으로 행운의 몰수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레드위너스는 7회 6점을 뽑아내는 뒷심을 발휘하며 11-10의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초반 흐름은 화순에슬레틱스가 가져갔다. 1회 최주성의 스리런에 이어 2회 김경태의 투런포가 나오는 등 2회까지 7-1로 앞섰지만 10-5로 앞선 7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레드위너스가 7회에만 대거 6점을 뽑는데 성공하면서 11-10의 역전승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



지난 4일 광주 무등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무등 토너먼트 F9 수완 O-lens와 페가수스의 경기 중 3회초 1사 F9 최용석의 내야 땅볼로 1루 주자 박천웅이 2루에서 포스아웃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등기 4주차
- ◇1경기 F9수완O-lens 0001030-4 페가수스 3010001-5
- ▲승리투수 : 김영학
- ◇2경기 새한기업재규어스 1111111-7 (몰수승)
- 대한철강야구단 0000000-0
- ◇3경기 화순에슬레틱스 3400102-10 레드위너스 1021016-11
- ▲승리투수 : 김도환
- ▲홈런 : 최주성(1회 3점), 김경태(2회 2점·이상 화순에슬레틱스)

광주·전남 선수들 AG 맹활약

이특영·박종우 등 총 64개 메달 수확...전체 27.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수확한 메달 234개 가운데 64개를 광주·전남 선수들이 수확했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종대·양학선·이특영·박종우 등 82명이 출전해 금메달 22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9개 등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이 수확한 전체 메달의 27.4%가 광주·전남 선수들의 몫의 결실이다. 볼링 대표팀 막내 박종우(23·광양시청)의 선전이 돋보였다. 박종우는 볼링 남자 5인조·개인종합·마스터스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자랑했고, 3인조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선수로서는 4관왕 이나영에 이어 2위, 전체 선수 중 9위를 차지했다. '열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순천 총잡이' 김준홍(24·KB국민은행)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아시아 최고의 저격수로 인정받으며, 19위에 랭크됐다. 광주 동신고를 나온 김동훈(25·문경시청)과 동신여고를 졸업한 김지연(20·육천군청), 순천 출신의 주옥(25·NH농협)은 지난 4일 대회 마지막날 열린 정구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 '금빛 피날레'를 장식했다. 김동훈과 주옥은 2관왕에 오르며 각각 29위와 33위를 기록했다. 여자 유도도 김성연(23·광주도시철도공사)이 '역슬 메치기'로 광주·전남의 첫 금메달

을 수확했다. 박경두(30·해남군청)는 '금빛 찌르기'로 금메달 사냥을 이어갔다. 지역 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시련을 딛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배드민턴 이용대(26·삼성전기)는 남자 단체전에서 월등한 실력을 뽐냈고, '부상 투혼'을 펼친 양학선(22·한국체대)은 0.016점 차로 은메달에 그쳤지만 박수 갈채를 받았다. 여자 양궁에서는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줬다. 곡성 출신의 대표팀 만인주 주현정(32·현대모비스)의 양보로 사선에 오른 이특영(25·광주시청)은 '금빛 화살'로 답례했다. 이 둘은 두암초-동명여중-광주체고 선·후배 사이다. 형제자매가 메달을 합작하기도 했다. 여자 핸드볼의 핵인 무안 출신 김은아(26·인천시청)가 친동생 김선화(23·인천시청)와 함께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올랐고, 광주일고 출신의 이승일·이승훈(성남시청) 형제는 남자 하키에서 동메달을 따내 두 배의 기쁨을 만끽했다. 미모의 여고생 골퍼 박결(18·동일전자정보고)은 '환상의 금 버디'를 선보였고, 나주 출신의 사이이 여제 나야름(24·삼양사)은 금·은·동을 끌고 루 쓸어 담았다. 야구에서는 이태양·나지연·양현종·강정호·임창용·나성범이, 축구에서는 이종호·김영욱(이상 전남 드래곤즈)이 극적인 금메달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년뒤 자카르타서 만나요”

인천 AG 폐막...MVP, 日 하기노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 현황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51	109	83	343
2	한국	79	71	84	234
3	일본	47	76	76	199
4	카자흐스탄	28	23	33	84
5	이란	21	18	18	57
6	태국	12	7	28	47
7	북한	11	11	14	36

아시아 45개국 모든 나라가 참여한 평화의 축제가 된 인천아시안게임은 16일간 인천을 밝힌 성화가 사그라지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지난달 19일 개막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 인천아시아주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 치른 아시안게임이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했으며, 선수와 임원 1만5000여 명이 인천에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를 함께 즐겼다.

이들은 육상과 수영·야구·축구 등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한국은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를 획득,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의 목표를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90개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 광주 대회보다는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를 더 수확했다. 특히, 극적인 승부를 펼친 축구, 농구, 야구를 비롯해 순연재가 출전한 리듬체조 등 팬들의 관심이 쏠린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종합 1위는 금 151개, 은 109개, 동 83개를 쓸어 담은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1982년 뉴델리 대회부터 9회 연속 국가별 종합 1위를 독점하고 있다. 북한은 금 11, 은 11, 동 14개로 7위에 올라 2002년 부산 대회(9위) 이후 12년 만에 '톱10'에 복귀했다.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삼성 MVP 어워드는 수영 4관왕에 오른 '일본의 신성' 하기노 고스케에게 돌아갔다. 하기노는 남자 자유형 200m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보태는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해 '별 중의 별'로 뽑혔다. 한국 볼링의 이나영(28·대전시청)은 금 4, 은 1, 동 1개를 획득하며 하기노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폐회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수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세이코 아마드 알파드 알



지난 4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다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대표해 바수키 짜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대회를 전달받은 뒤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광주시유도회 정용석 부회장과 염창곤 회장,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성연,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감독.

광주유도회, 금메달리스트 김성연 환영연

“이제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입니다. 국가 대표로 선발돼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유도회는 지난 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유도 70kg급 금메달리스트 김성연 선수 환영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창단 첫 해에 메이저대회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

확한 김성연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창곤 광주시유도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김성연 선수와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염 회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는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과 내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각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도 이날 전격적으로 남북 땅을 밟고 폐회식을 지켜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참가자들은 인천에서 만들어낸 한희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석별의 정을 나누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4년 뒤인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